

# 아프리카 DR콩고의 농촌종합개발사업 현황과 과제: 추엔게 지역을 중심으로

허진영 |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교육팀장

---

공고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에 인접하고 있는 추엔게 지역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넓고 기름진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근교 농업지역이다. 또한 콩고강과 추엔게강을 수원으로 하는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건기에도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한국정부가 시행한 DR콩고 추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에 의한 무상지원사업으로 2010년 7월 9일 양국 대표단의 R/D(Record of Discussion) 체결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이후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4년간에 걸쳐 사업을 해왔으며 주요목적은 소득증대, 주민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등을 통한 사업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한 양국 간 농업·농촌개발 분야 협력 강화에 있다. 사업내용은 전문가 파견, 농촌인프라 건설, 주민역량강화, 한국초청연수, 기자재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추엔게 지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농촌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추엔게, 농촌개발, 생활개선, 소득창출, 역량강화

## I. 서론

한국은 2009년 11월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로서 한국은 1996년에 OECD에 가입국이 됨으로서 1945년 정부 수립 이래 50여 년간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오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하였으며, 이제 다시 DAC 회원국이 됨으로서 명실 공히 선진원조국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뜻 깊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위에 상응하는 원조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책무도 함께 지게 되었다.<sup>1</sup>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2009년 7월 이탈리아 G8 확대정상회의 식량안보 세션에서 후진국 농업 인프라 지원 약속지원을 약속하고 2009년 이후 3년간 세계 기아해결을 위하여 농업 인프라 건설에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0년 농식품부 연두 업무보고 시 콩고민주공화국 농촌개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하였으며, 이후 한국정부의 국무총리실 국무차관 아프리카 방문('09. 8. 22~9. 4)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실시한 농업협력사업 현지조사 시, DR 콩고의 농촌지역 빈곤 해소 및 농촌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2011년 현재 인구 67,757.6천 명(HDI Report 2011, UNDP)의 콩고민주공화국은 1960년 독립 이후 1966~'74년 사이 교통, 통신 및 사회 인프라시설 건설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내전을 겪으면서 이러한 인프라는 파괴되었거나 오랜 기간 수리 및 관리 부실로 파괴된 상태에 있다.

DR콩고 국민소득은 독립 당시인 1960년에 1인당 GDP 360달러에서 1992년 167달러로, 다시 2002년 100달러로 하락하였으며, 2011년 1인당

---

1. 유엔에서 권장하고 있는 ODA/GNI의 목표치는 0.7%이며, 2009년 한국의 ODA/GNI 비율은 0.09% 수준이다.

GDP는 290달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DI Report 2011, UNDP).

콩고민주공화국은 8천만 헥타르 규모의 경작지, 4백만 헥타르 규모의 관개가능 면적, 농작물 생산이 가능한 기후 다양성 및 풍부한 농업용수, 소 4천만 마리를 방목할 수 있는 초지, 1억 2천5백만 헥타르 규모의 열대 우림과 같은 풍부한 농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프라 미비, 자원부족, 정책부재 등 구조적 한계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AO, 2004). 또한 농지가 일부 부유계층에 집중됨으로서 농업발전의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왜냐하면 전체 농민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농가의 농경지소유비율은 13.5%인 반면 대농계층은 전체농경지의 8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이다(Omamo et al., 2004).

한편 DR콩고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2000년 0.224에서 2011년 0.286으로 기간 중 다소 증가하였으나 조사대상 187개국 중 187번째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나라 중에서도 가장 미개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HDI Report 2011, UNDP). 한국정부는 2010년 3월 농식품부 제 2차관의 DR콩고 방문 시('10. 3. 28~4. 1) DR콩고 농촌개발부 장관과 한-DR콩고 농업·농촌분야 양국간 협력관련사항을 논의하였으며, 같은 시기 DR콩고 조셉 카빌라 대통령 방한 시('10. 3. 28~31)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을 DR콩고에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본 사업 시행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후 2010년 3월 한국의 농식품부 조사단이 DR콩고 3개 마을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1개 마을(키치니마을)을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으나, 2010년 4월 DR콩고 주재 한국대사관의 요청에 따른 관계부처 회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각각 추진하던 사업을 추엔게 지역으로 통합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확정하고 2010년 7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동조사단을 구성, 추엔게 마을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 7월 9일 한국대표단과 DR콩고 측 농업부 및 농촌개발부간 R/D(Record of Discussion)를 체결하였다(김병철, 2012). 그리하여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농촌중

합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는 그 기간 동안의 사업을 사후통합관리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추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재조명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 II. 추엔게 지역 개황

추엔게는 DR콩고 수도 킨샤사의 동쪽에 위치하며 킨샤사시에서 1번국도(N1)을 따라 동쪽으로 약 20km 지점의 국도변에서 북쪽으로 통하는 지방도로 약 1.5km 지점에 있다. 추엔게의 행정구역은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시 창구군(Tshangu)의 마시나코문(Masina) 및 은젤레코문(Nsele) 2개 코문에 걸쳐 있다. 이와 같이 추엔게 지역이 두 개의 코문으로 갈라진 이유는 이 지역으로 흐르는 추엔게강이 마시나코문과 은젤레코문의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 이 강의 양편을 통틀어 추엔게 지역으로 불려지고 있다.

마시나 코문 쪽에 있는 추엔게는 마푸따 끼줄라구역(Quartier Mafuta Kizola)의 Mafuta Kizola, Lokali 1, Lokali 2, Centre Tshuenge 등 4개 사이트(Site) 중 하나인데 추엔게 중심은 Lukila, Mongala, Pemba 1, Pemba 2, Bafuna, Lufuku 등 6개 에비뉴(Avenue)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엔게 지역 주거지는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추엔게 마을 입구에는 동서로 철로가 가로 놓여 있고 남북으로 추엔게강이 흐르고 있으며, 철로에서 북쪽 약 8km 지점에 콩고강이 동서로 흐르고 있다. 이 콩고강은 이웃하고 있는 콩고공화국(Republic of Congo)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지구인 추엔게 마을은 철도의 북쪽지역이다. 취락지구는 마시나 코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토면적은 은젤레 코문에 다소 많은 면적이 놓여 있다. 철도를 기준으로 남쪽지역은 마시나코문의 마타데구역(Quartier Matade), 끼부구역(Quartier Kivu) 등 수만가구가 거주하는 도시변두리 인구밀집지역이 인접하고 있다. 주요 시설물로는 마을 중심으로 철로가 지나가며, 철로와 접하여 공동묘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콩고공화국과의 국경지역을 관리하는 국유지 관리사무소가 사업지구

입구에 있다.

추엔게는 이 지역 중심부를 흐르는 추엔게강 이름을 따서 명명한 지역명이다. 추엔게 지역의 대부분은 농업지역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들판주위의 있는 약간 높은 언덕배기에 집들이 밀집해 있는 형상을 이루고 있다. 추엔게 지역 면적은 추엔게 강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으로 약 3km, 서쪽으로 약 1km, 북쪽 콩고강까지는 약 8km이다. 추엔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영농주는 약 4,300명(2014. 11)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킨샤사 인근 약 10개 코뮌지역으로부터 출퇴근 경작을 하고 있다. 또한 추엔게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은 전체 농민 4,300명 중 약 1.7%인 73가구이며, 이를 농지면적비율로 보면 전체 약 2,780ha 중 추엔게 마을 농가가 차지하는 농지면적 비율은 약 2.3%인 63ha뿐이다. 이와 같이 추엔게 지역은 겉보기에 마을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주위에 산재하고 있는 가구들은 추엔게 농업지역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도시 변두리 지역이다.

현재 추엔게에는 약 50개의 비공식 모임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이 지역에 시행된 원조사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거중심이 아닌 추엔게 농업지역에서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외부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기 위해 조직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농민들은 이곳에 있는 조직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농지로 출근하여 일을 하고 다시 주거지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지역 마을이 가지는 공동체 의식은 극히 희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와 문화 측면에서 추엔게는 현재와 같은 농업지역으로 발전된 역사는 비교적 짧다. 추엔게가 농업지역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8년경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당시 몇몇 사람이 콩고강에 고기를 잡으러 왔다가 추엔게 강변 땅을 일구어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며, 수개월 후 친구 등 수십명을 불러들여 함께 농작업을 시작한 것이 추엔게 농업지역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추엔게는 마을이 형성된 역사가 짧고 또한 혈연이나 지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하나씩 둘씩 찾아와 각자 강변습지를

〈표 1-1〉 추엔게 지역 가구

구 분	농가 아닌 가구	농지 있는 가구					계(가구)
		30m <sup>2</sup> 미만	31~50m <sup>2</sup>	51~80m <sup>2</sup>	1ha	소계	
가구수	183	20	23	9	21	73	256

자료: 현지조사(2014. 11)

〈표 1-2〉 추엔게 사이트 인구

인 구(명)	남	여
1,824	892	932

자료: 현지조사(2014. 11)

개간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의 주거지를 형성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근 여러 마을로부터 출퇴근 농사를 하는 지역으로 정착됨으로서 추엔게는 아프리카 전통마을이 갖는 전통이나 문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추엔게 마을로 불리는 추엔게 지역은 북쪽으로 추엔게 마시나지역 농지에 인접하고 남쪽으로는 철도에 접하여 길게 늘어서 있는데 6개 예비뉴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11월에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추엔게 지역 가구는 252호, 인구는 1,824명이며 이중 남자 892명, 여자는 93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엔게 농업지역이 인근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1ha 소유한 전업 농가는 21농가뿐이며, 42농가는 자가소비용으로 소규모의 채소밭을 가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엔게 전체 농경지 경작자는 약 4,300명인데 추엔게 지역 가구 중 추엔게 농업지역에서 농사를 소규모라도 짓고 있는 농가는 73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거지역인 추엔게 지역과 인접한 추엔게 농업지역과는 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추엔게 마을은 1번 국도(N1)에서 약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1번 국도에서 추엔게로 향하는 약 1km 지점까지는 비교적 넓은 포장도로가 놓여 있으나 이곳에서 추엔게 마을로 통하는 길은 협소한 비포장도로인데 지반이 모래로 되어

있어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다. 마을에서 1.8km 떨어진 1번 국도변에 비교적 큰 상설시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인근지역에도 철로 변을 따라 영세한 가게가 줄지어 있다. 따라서 추엔게 농업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인근지역에서 대부분 판매되고 있다. 마을인근지역으로 운행되는 노선 버스는 없다. 추엔게 마을에서 국도까지는 걸어서 가거나 마을에서 포장도로가 위치한 곳까지 걸어가서 그곳에서 택시를 이용하거나 모토택시를 이용하여 국도변에 닿아 그곳에서 시내로 운행되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추엔게는 도시근교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주민의 이동이나 농산물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편이다.

농산물 및 농자재유통 측면에서 추엔게는 전형적인 도시근교 농업지역으로 수도인 킨샤사 인근지역 도시민을 소비자로 하는 갖가지 채소류가 재배되고 있다.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대부분 인근 지역 시장 상인들에 의해 포전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 지역 농민들은 운반수단이 전무하다. 따라서 모든 농산물 거래는 인근 시장상인들의 방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매매계약 후 당해상인은 직접 수확한 후 포장에서 선별하고 손질하여 직접 머리에 이고 인근지역에서 행상을 하거나 일부 상인은 포장도로까지 운반하여 이곳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국도변 소비시장으로 다시 운반하여 그곳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거래가격은 전일 거래가격을 참고한 호가로 거래되며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되고 있다. 따라서 추엔게 농민은 가격결정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추엔게 지역에는 1일 약 200 내지 400명의 상인이 왕래를 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병철, 2012). 이들은 1회 30 내지 50kg의 채소를 머리에 이고 소비지로 운반하며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직접 채소농장에 와서 농민과 계약을 한 후 직접 채소를 수확하여 인근 추엔게강에서 세척 등 손질을 한 후 다발로 묶어 머리에 이고 운반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집상인 동시에 소매상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추엔게 농업지역에 농기계는 전무하다. 대체로 농작업 단계의 변화는 수작업단계에서 축력을 이용하는 단계를 거쳐 농기계 이용단계로 이동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로이나 추엔게에는 축력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모든 농작

업은 수작업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경우에는 삽과 팽이가 사용되고 정지에는 팽이가 사용되며 파종이나 이식은 맨손으로 하고 있다. 완숙퇴비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땅을 파고 건초를 넣은 후 그 위에 흙은 덮은 다음 파종을 하는 형태로 채소농사를 짓고 있다. 채소재배에는 대부분 농가에서 단기간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비료를 사용하고 있다.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는 거의 없는데 이는 추엔게에서 재배되는 채소류는 대부분 병충해에 비교적 강한 일부 채소가 재배되고 있는 까닭으로 판단된다.

농자재의 구매경로를 보면, 농작업 도구는 인근시장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비료, 농약, 종자 등은 추엔게 농업지역내에 군데군데 자리하고 있는 노점 소매상에서 구입하고 있다. 현재 추엔게 영농지역에 산재해 있는 노점 소매상은 22개소가 있다. 이들 노점상에서는 비료를 비롯하여 각종 채소종자와 약간의 농약도 판매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통조림 깡통 등으로 개량하여 판매되고 있다. 이들 가게가 영업이 되는 까닭은 우선 거래되는 양이 극히 소량이기도 하고 DR콩고 전역이 그러하듯 추엔게 지역도 교통이 불편하여 개별농가가 시내에 나가서 농자재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소매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자재 가격은 킨샤사 시내 소매점 가격에 비해서 약 30~60%가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비료나 농약, 채소종자류 등 농업기자재의 소비량이 늘어나면 추엔게 영농지역 농민들이 공동으로 구매를 하는 방식이 거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이러한 시도는 없었다.

농업소득 측면에서 추엔게 농업지역의 경작가능 농경지면적은 습지지역을 포함하여 약 2,780ha이나 이중 현재 채소를 경작하고 있는 면적은 1,560ha(추엔게 마시나 지역 720ha, 추엔게 은셀레 지역 840ha)로 조사되고 있다. 추엔게 농업지역 채소농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응가이응가이, 아마란타, 마뎀벨레 등 3가지 주요작물을 기준으로 추정한 소득분석에 의하면, 추엔게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약 1,500달러로 추정된다.<sup>2</sup> 이는 8인가족 기준으

2. 응가이응가이:  $20\text{m} \times 2\text{m} = 40\text{m}^2$ 당 소득: 11,000프랑(판매가 20,000프랑-투입재 9,000프랑), 아마란타:  $10\text{m} \times 1.6\text{m} = 16\text{m}^2$ 당 소득: 6,000프랑(판매가 11,000프랑-투입재 5,000프랑),  $1\text{a} = 100\text{m}^2$   $1\text{ha} = 100\text{a}$ .



로 환산하면 1인당 연평균소득은 약 190달러가 되는 것으로 2015년 현재 DR콩고 1인당 GDP 290달러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소득 수준 추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사업지역이 도시근교에 위치함으로서 농업이 주 소득원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추엔게 지역 농업소득 분석에서는 참작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추엔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의 거주 지역은 수도 킨샤사 지역이다. 따라서 농사짓는 일 이외에 대부분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며, 채소경작을 부업으로 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 또한 추엔게 이외의 인근 농업지역의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추엔게 농업지역의 소득만으로 가구당 소득을 예측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 토지법에 의하면 모든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로 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있는 토지는 해당지역 위원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콩고강 하천부지를 농지로 개간한 추엔게 농업지역에는 위원장이 없다. 추엔게 지역의 모든 토지는 국유지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국가(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농민은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지 농가조사에 의하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의 소유권은 경작자 자신에게 있으며 매매,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추엔게 마을 주택 구조는 대부분 시멘트 블록 벽에 합석지붕 형태이며, 마당에는 소규모의 텃밭을 일구어 채소류, 카사바 등을 심어 자가소비하고 있다. 마을까지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으나 단수가 잦아 먹는 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다. 상수도 이용 시 식수 구입비용은 20리터 한 통에 40콩고 프랑(한화 약 50원) 정도 한다. 전기는 철로변 마을 입구까지 전선이 인입되어 있으나 마시나 구역의 경우, 가구별 배전은 안 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불법으로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가적인 열악한 전력사정으로 인해 전기가 불규칙하게 공급되는 동시에 정전되는 경우가 많다. 취사는 나무나 숯을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만 화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취사용 연료는 나무를 구입 또는 채취하거나 숯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화장실은 가구별 화장

실이 있으나 모두 재래식 화장실이며 분뇨는 자연적으로 지하로 스며들게 하는 형태여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추엔게 마을 인근 2km 내에 보건진료소 3개소, 학교 2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나 시설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김병철, 2012).

### III. 추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 현황

DR콩고는 에티오피아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원조를 받는 국가이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 DR콩고 추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은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에 의한 무상지원사업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4년간에 걸친 사업이며, 주요목적은 주민교육을 통해 정신개혁과 농업생산성 증대, 소득증대시설 설치를 통한 소득증대, 직업기술훈련, 마을개발위원회 조직, 해외연수와 같은 주민역량강화 및 공공시설물 건설, 영농시설물 건설과 같은 생활환경개선,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자립적 농촌공동체 구축을 위한 농민조합 활성화 등을 달성하여 사업지역 주민 생활의 질 향상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에 있다. 또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한 양국 간 농업·농촌개발 분야 협력 강화에 있다.

사업내용은 크게 (1) 전문가 파견, (2) 인프라 건설, (3) 주민역량강화, (4) 한국초청연수, (5) 기자재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국 간 체결한 R/D (Record of Discussions)에 따른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생활환경 개선 부문
  - 공공시설물 건설: 마을회관, 식수개발
  - 영농시설물 건설: 다목적 창고, 벼건조장
- 소득 증대 부문
  - 농업생산성 증대: 시범포 운영(벼시범포, 채소시범포, 퇴비장)
  - 소득증대시설 설치: 양어장, 정미소

- 주민역량 강화 부문
  - 직업기술 훈련: 미장 및 벽돌제작, 제빵, 이미용, 제봉기술과정
  - 마을개발위원회 조직: 마을개발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
  - 해외 연수: 고위과정 및 실무과정 한국 연수
- 기자재 공여: 농기계 및 농기구, 사무용장비, 직업기술훈련 기자재 등

또한 추엔게 사업은 농민조직을 구성하고 마을회관, 콤플렉스 프라자, 관정개발, 양어장 등 시설물 설치 및 기자재를 운영하여 소득사업을 통해 마을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자체적인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해 추엔게강 제방 및 용·배수로 등 관개시설을 확보하여 경작 가능 경지면적을 확장하는데 있다.

DR콩고 농업농촌개발부에서는 추엔게 사업은 미흡한 식수, 전기 관련 인프라가 확충된다면 운영은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농업농촌개발부 담당자가 통합 사후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담당하여 관리토록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통합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마을 위원회와 산하 8개 소위원회에 대한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마을위원회 산하 8개 소위원회에서 마을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소득원 사업의 운영 및 기금현황과 기자재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상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수렴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였다. 수요조사 시 마을위원회에서는 8개 소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위원회별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해 8개 항목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진행 당시 지원되었던 사항을 완료 후에도 다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는 마을발전기금을 통해 자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총체적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주민협동 작업을 추진하여 반영하였다.

추엔게 사업은 한국의 농업농촌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것을 주요 사업목적 중 하나로 하고 있으며, 농촌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농촌개발사업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농촌마을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농촌개발사업은 사업으로

건설된 제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을 수혜자가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또한 오래도록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수가 제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유지관리업무는 마을의 자치조직이 책임져야 한다. 본 사업에서는 사업초기단계에 추엔계 마을개발위원회를 조직하여 본 위원회가 사업의 시행과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였다. 마을자치조직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운영을 통하여 주민역량강화,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서 자립마을육성의 발판을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였다.

#### IV. 외부지원 현황 및 성과

추엔계는 수도 킨샤사 인근지역 중에서는 비교적 넓은 농경지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어서 외부로부터 원조사업이 꾸준히 시행된 지역이나 농로, 양배수 시설 등 농업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다. 특히 FAO에서 2003~'05년에 걸쳐 추엔계 지역에 관배수로 사업, 농기구 보급사업, 양돈 사업 등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후 유지관리 부실로 향후 성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배수로는 사업 이후 이 지역 농민들에 의한 유지보수작업이 이루어진 흔적은 거의 없으며 토사 퇴적 등으로 현재 흔적만 남아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양돈사업의 성과 또한 현재 양돈농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돈사업의 성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PSSA에서 2004~'06년에 걸쳐 한 추엔계강 정비는 좁은 제방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져 한국정부의 추엔계강 제방사업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단지 몇 년이 지난 다음 사후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제방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제기된다.

특히 농기구공여 사업에는 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추엔계는 외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추엔계 마을에 농가로 이루어진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표 1-3〉 추엔게 농업지역 외국기구 사업시행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지원기관	사업내용
기아극복사업	1999~2000	WFP	벼농사지역 관개개선
식량확보사업	1999~2000	PAM	관개수로 정비
기아극복사업	2000	AC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돈농가구축</li> <li>• 협동조합교육</li> <li>• 농민역량강화</li> </ul>
식량생산개선사업	2001	CAAKIN	화학비료 판매
식량생산개선사업	2002	CARITAS	채소재배지원
벼농사 생산성 증대 사업	2002~2003	FAO	영농기술보급
관개개선사업	2004~2005	FAO	관개개선
관개개선사업	2004~2006	PS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엔게강 정비</li> <li>• 수로개폐문 구축</li> </ul>
식량생산개선사업	2004~2012	HUP	영농기술과 재정지원
환경개선사업	2011	ONU Habitat	농민쉼터 구축
농촌종합개발사업	2011~2014	KO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시설물 건설</li> <li>• 소득증대시설 설치</li> <li>• 직업기술 훈련</li> <li>• 마을개발위원회 조직</li> <li>• 기자재 공여</li> </ul>
식량생산개선사업	2014	PAPAKIN	영농기술과 식량생산지원

자료: Heo et al.(2015): 28-30.

곳이 아니며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엔게 지역 주민은 대부분 농업과 관계가 없다. 외부로부터 농기구를 받는 사람은 이곳 추엔게 마을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라 출퇴근하고 있는 농업인 조직인데 이들에게는 공여 받은 농기계를 보관할 창고시설이 없고 이것을 지켜줄 마을이 인근에 없기 때문에 공여 받은 물품은 즉시 증발되거나 개인용으로 전락되고 마는 구조적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추엔게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지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엔게 마을 개발위원회와 소위원회회를 조직하였으며 이 자치기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진행했다. 이처럼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외부지원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왔으나 부분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뿐 전체

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가장 규모가 크고 효과적으로 평가된다.

## V. 농촌종합개발사업 통합사후관리 활동 및 성과

통합사후관리 추진목적은 DR공고 추엔계 농촌종합개발사업 사후관리로 새마을운동 교육 즉 소득증대, 주민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자립적 농촌공동체 구축을 위한 농민조합 활성화 등을 달성하여 사업지역 주민 생활의 질 향상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있다. 또한 주민자치조직 결성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업 종료 후, 제방, 용배수로 등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농민 자체적인 조직 형성 및 교육, 사후관리 재원 확보가 필수인 바, 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 수원국과 협의하여 조직한 추엔계 주민위원회 산하에 이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다. 아울러 통합 사후관리를 통한 농민들의 의식개선, 농업생산성 소득향상, 환경개선 등의 사업효과성 및 지속성 증대에 있다. 그로 인해 사후관리를 위해 추엔계 마을개발위원회의 4년간 실적을 토대로 위원장과 각 소위원회 담당자들, 관계된 농민, 마을위원회, 관계기관 공무원 등과 여러 차례 면담과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제1회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조사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위원회의 자립역량강화와 주민교육을 위해 기존의 추엔계개발위원회에서 〈추엔계새마을 농민협동조합〉 조직형태로 조직을 개편함에 동시에 정관, 내규 및 농민협동조합의 운영에 관련해 많은 토론과 심의를 거쳤다.

### 1. 농촌개발 목적 및 추진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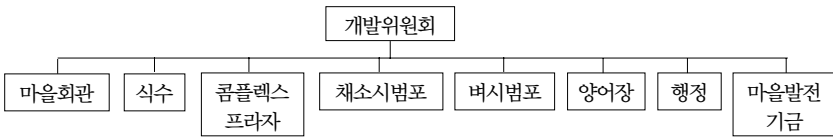
농촌개발은 마을을 단위로 개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마을

은 지역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기초 단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개발은 마을 지역사회의 운영 메커니즘을 토대로 마을을 개발단위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동일한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공동의 우리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문제의식과 가치를 공유하며 목표 의식도 함께 지니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비나 노동력을 기꺼이 분담할 수 있게 된다. 추엔게 마을의 경우, 현재까지 사업소득 결과 흑자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도자들의 운영 불투명성, 행정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큰 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추진기 본방향은 현재 농민들의 문맹률이 높아 현지 언어인 링갈리어와 프랑스어 교육을 시킴으로 농민들의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태양광설치로 전기를 보급함으로써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은 제빵, 이미용, 재봉 등 직업교육을 비롯하여 식수, 관개시설 등 다양한 수입원들을 올릴 수 있다. 아울러 농산물에 대한 유통망과 마을구판장을 확보하여 보다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5개의 양어장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여 소득을 높여야 한다. 추엔게는 공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차후 현지에 있는 락드 마 발레(Lac de Ma Vallée)와 같이 농촌관광 형태를 띤 3차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하여 레스토랑, 여가시설 등을 갖추므로 인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보다 많은 사업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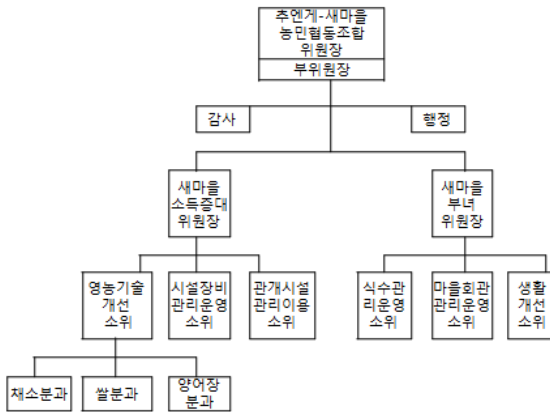
## 2. 주민조직 개편

기존 4년 동안의 주민조직은 소득 측면에서 성과가 없었다. 그 이유는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의 부패로 현상유지에 그쳤다. 그로 인해 기존의 <추엔게 개발위원회>에서 <추엔게-새마을 농민협동조합>으로 농민들과 합의 하에 명칭을 바꾸었다. 특히 조직에 있어서 추엔게-새마을 농민협동조합 위원장의 권한을 분산시켜 새마을 소득증대 위원장과 새마을 부녀 위원장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것이 조직도에서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새마을 부녀위원장이 행정에 속한 회계를 담당하여 행정에서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

다. 또한 기존의 추엔계 개발 위원회의 소위원회들을 신조직도 속에 포함시키므로 인해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아울러 전에 추엔계 개발위원회 조직과 마시나, 은셀레지역의 관개 시설은 따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의 관개시설 관리이용 소위원회에는 기존의 마시나, 은셀레지역의 관개시설 대표들을 흡수시켰다. 단지 약 2,000명으로 구성된 46개의 농민조직 NGO들은 협동조합 속에 조직을 흡수할 예정이다. 추엔계 대표 7명(새마을 농민연합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2명, 행정, 새마을소득증대 위원장, 새마을부녀위원장)에 대한 선거는 선거위원회를 이미 구성하여 선거는 2014년 10월에 시행하였고, 신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기존 위원회 조직도〉



자료: 저자 정리

〈신조직도: 추엔계-새마을 농민협동조합〉



### 3. 주민교육 및 기자재 공여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한 추엔게 사업은 소득증대 및 조직 강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어 추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 통합 사후관리 측면에서 추후 사업효과 증대를 위한 사후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주민교육을 실행하였다. 주민교육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마시나-은셀레 꼬핀 생활수준 향상에 있다. 여기에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워크숍을 통한 교육으로 자체역량강화를 이끌 수 있고 작은 도서관, 컴퓨터교육, 쉼터, 화장실, 소각장과 같은 사회서비스 제공기반을 조성을 함으로써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계획측면에서 주민교육은 한국에서의 농촌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일부 추엔게 농민들의 요구사항과 현지 NGO Batide의 프로그램을 반영하였다. 실행부분은 총 16회로 구성하였고 주민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듣도록 하였다. 특히 시간관념이 없는 주민들이 주민교육을 통해 교육시간에 맞추어 오는 습관을 길러주었다. 단지 교육장소가 협소하여 어려운 점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론교육이 더 많아 앞으로는 실습위주의 교육을 주민들이 받기를 원하였다. 주민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주민교육: 총 16회
- 주민교육 주요내용
  - 현지 NGO Batide와 협력으로 한 코이가 주민교육
  - 새마을 교육
  - 주민이 요구하는 조직별 재무, 회계요령 교육
  - 그 밖의 각 분야 전문가 초청하여 교육프로그램에 상응하는 교육
- 주민교육 프로그램

주차	교육프로그램	시수	강사
1주차	양어장의 경영	6	
2주차	소액금융의 이해	4	

주차	교육프로그램	시수	강사
3주차	보건위생교육(말라리아, 에이즈, 에볼라 등)	4	
4주차	농업협동조합의 구성과 행정	4	현지NGO
5주차	농민조직의 구성과 관리	4	현지NGO
6주차	채소재배의 생산기술	4	현지NGO
7주차	쌀 종자의 확대와 재배생산기술	4	현지NGO
8주차	관개시설 유지보수 어떻게 할 것인가?	4	현지NGO
9주차	재무의 기초	4	현지NGO
10주차	마케팅의 기초	4	
11주차	새마을운동의 이해	4	
12주차	농기계 사용법과 수리	4	
13주차	컴퓨터교육1	4	
14주차	컴퓨터교육2	4	
15주차	컴퓨터교육3	4	
16주차	컴퓨터교육4	4	

자료: 허진영(2015).

또한 우리 정부의 기자재 공여로 작은 도서관과 컴퓨터실 구축, 계양대와 마을안내 푯말 설치, 추엔계-새마을운동 책자 발간 등을 하였다. 특히 마을회관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마을회관 직업교육 프로그램(2015년 3월 기준) (단위:\$)

	과목	수업료 및 이용료	기간
컴퓨터	컴퓨터기초	10	10일
	워드	20	1달
	엑셀	20	20일
	엑셀심화과정	30	20일
	인터넷	10	5일
	액세스	35	1달
	액세스 심화과정	45	1달
	포토	35	1달

과목		수업료 및 이용료	기간
재봉		80	4달
이미용		80	4달
제과제빵		90	3달
도서관		2(학생)	6개월
		3(어른)	

자료: 허진영(2015).

#### 4. 통합사후관리 성과

앞서 주민교육은 16주차로 구성하여 농민들이 관심 있는 강의에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우수한 강사 초빙으로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이론 수업 이외에 실습을 원하였다. 카사바 농장과 락드마발레의 두 차례의 선진지 견학은 농민들에게 시야를 더 넓혀 주었고, 농사 이외의 농기계교육과 소득증대 측면에서 아직 DR콩고에는 없는 다른 산업인 농촌관광에 대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추엔계와 새마을운동>에 대한 워크를 통해 평소 가지고 있는 농민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1970년대부터 정착한 그들의 근원을 여러 농민들의 간증을 토대로 추엔계의 역사와 새마을운동에 관련한 <추엔계와 새마을운동> 총 100페이지의 책자 발간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발견하게끔 하였다. 이 책자를 통하여 추엔계 농민들이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기계를 다룰 수 없었던 농민들이 창고에 늘 방치해 놓은 농기계를 사후관리교육으로서의 농기계교육을 시킴으로서 운전과 수리를 함으로서 농기계임대와 아울러 일자리창출에도 큰 효과를 보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농민들과의 토의를 걸쳐 정관과 내규를 작성을 토대로 한 <추엔계-새마을 농민협동조합> 결성은 앞으로 농민들의 소득분배 차원에서 협동조합의 큰 역할을 하리라 판단된다. 기자개 공여와 성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세금으로 기자재를 지원한다는 인식을 항상 농민들에게 인식시켜주었으며 기자재 구매 절차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였다. 아울러 예산부분에서 여러 업체의 기자재 가격비교 분

석을 통하여 많은 부분을 절약하였다. 또한 환경이 열악한 추엔게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독서능력을 키워주었다. 또한 학교 교과서가 없는 학생들에게 작은 도서관에 교과서를 비치함으로써 학교공부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컴퓨터실을 구축부분에 있어서는 추엔게 마을회관에는 컴퓨터가 없었다. 그로 인해 행정에 관련된 모든 문서들이 종이로 작성되어 보관하기 힘들고 분실 위험도 있기 때문에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또한 일반 주민들도 컴퓨터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그리하여 컴퓨터실을 구축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서류를 컴퓨터 작업화 하여 보관하고 있다. 그 외 계양대설치와 마을안내 팻말 설치를 해줌으로써 생활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다.

## VI. 결론

DR콩고 추엔게 지역은 많은 취약점을 내포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또한 앞으로 추엔게 농민 스스로 소득증대, 주민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자립적 농촌공동체 구축을 위한 농민조합 활성화 등을 달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지만, 현재 추엔게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한국정부의 노력으로 다른 지역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DR콩고에서 가장 모범적인 농촌지역으로 바뀌었다. 추엔게 지역 사업을 한 대한민국 정부는 1945년에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자마자 한국 전쟁을 겪었다. 그러나 이후 약 50년 기간 동안 1960년 당시 아프리카 케냐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던 국민소득이 현재 OECD의 DAC 회원국이 되었으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발전을 하기까지는 지역 리더들의 헌신적 봉사와 더불어 국민 개개인이 잘 살아보자는 일념이 상호 연결된 사회적 분위기가 주효하였다. 추엔게 지역주민에게도 이러한 정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추엔게 지역이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자 한다.

첫째, 추엔게 농민지도자들을 일 년에 몇 명씩 선발하여 한국에 농업과 새 마을운동에 관련한 연수를 시키기를 건의한다. 의외로 농민들이 한국의 농업 기술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

둘째, 추엔게 지역을 대상으로 농민들이 교육 받고 싶은 것 중 제과, 제빵, 한국어, 영어교육, 태권도를 배우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해외봉사단(제과, 제빵, 한국어, 영어교육, 태권도)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보완사항으로는 현지 농촌관련 NGO와의 협력을 통한 정보 공유와 농민조직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DR콩고의 농촌사정을 고려한 향후 코이카 프로젝트 추진시 유의사항으로는 우선 현지사전조사 기간을 되도록 1년 이상 기간을 두어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다. 특히 현재 이원화된 농업부와 농촌개발부를 중심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해당농촌지역을 사전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주 바뀌는 단기 전문가 파견이 아니라 장기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소득증대 측면에서는 농촌지역에 맞는 한국의 종자(배추, 고추 등)를 정기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제기구로부터의 원조사업이나 DR콩고 정부가 투자하는 공공부문 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관련 법률을 따로 제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농업농촌개발부 산하에 유지관리조직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투고일자: 2015-12-08 심사일자: 2015-12-17 게재확정: 2015-12-22

## 참고문헌

- 국무총리실. <http://www.odakorea.go.kr/oz.main.ODAMain.do>(검색일: 2015.12.17)
- 국제협력개발위원회. 2012. 『콩고민주공화국 국가협력전략 2012-201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김병철. 2012. 『콩고민주공화국 추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 최종보고서』, KOICA
- 박영호 외. 2009.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KIEP 연구보고서.

- 윤종혁. 2010. 『한·콩고민주공화국 교육협력 이슈 및 정책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외교통상부. 2011. 『DR콩고 개황』.  
 전승훈 외. 2007. 『아프리카 빈곤대책으로서의 농촌개발』, KIEP 지역연구시리즈.  
 코트라. 2013. 『콩고민주공화국 개요』, KOTRA.  
 한국국제협력단. <http://www.odakorea.go.kr>(검색일: 2015.12.15)  
 한국수출입은행. 2010. 『DR콩고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http://www.edcfkorea.go.kr/edcf/index.jsp>(검색일: 2015.12.17)  
 허진영. 2015. 『추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 통합사후관리를 위한 새마을운동 최종보고서』, KOICA.  
 Claude AKENAWI LAKEN and BODY BODY DI TSIKU LUFUA. 2014. *Introduction a la sociologie africaine*, Centre de Recherches Pédagogiques.  
 DRC. 2011. *Projets prioritaires développement rural 2012-2016*.  
 DRC. 2011. *Programme national d'investissement agricole 2012-2016*.  
 Heo, Jinyeong et al. 2015. *Tshuenge et Le Mouvement Saemaul*, GBS Design.  
 KOICA statistics, <http://www.stat.koica.go.kr>(검색일: 2015.12.13)  
 Médiaspaul. 2010. *Republique Democratique du Congo*, Médiaspaul.  
 Mokengo, J., Mumuntu L., and Tamangani M. 2011. *Geographie La R.D. Congo et l'Afrique*, Médiaspaul.  
 New SCOLOT éditions. 2004. *Histoire 6ème Primaire, Le Congo en Afrique et dans le monde*, New SCOLOT éditions.  
 OECD/DAC통계. <http://www.aidflows.org/>(검색일: 2015.12.15)  
 Olivier Charnoz and Jean-Michel Severino. 2007. *L'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La Découverte.  
 Omamo, S.W., X. Diao, S. Wood, J. Chamberlin, L. You, S. Benin, and P. Hazell. 2004. *Agricultural Development Policy in Eastern and Central Africa: Strategic Investment Priorities for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Report prepared under ASARECA/IFPRI Project Strategies and Priorities for Sub-Reg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Sub-Regional Agricultural Research-for-Development in Eastern and Central Africa. Washington, DC: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SBS. 2014.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농업한류 지구촌을 깨우다 2부 아프리카에 심은 상생형 새마을운동”.  
 Stamm, Anne. 1998. *L'Afrique de la Colonisation a l'indépendance*, PUF.  
 UNDP. <http://www.undp.org/>(검색일: 2015.12.22)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검색일: 2015.12.22)

## Situation and Task of the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roject in Tshuenge Area, D.R. Congo of Africa

Jinyeong Heo

International department, Team manager  
Kyungwoon University Saemaul Academy

The main objectives of the Project are to improve quality of life through income generation, capacity building and betterment of living environment for the beneficiaries in the project area, and to strengthen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on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through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Project scopes are based on the R/D (Record of Discussion) signed on July 2010 by the representatives of both governments. The components of the Project would be largely classified as the followings: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 (Con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 community center, drinking water, construction of farming facilities: complex plaza (multi-warehouse), rice drying facility). Income generation: Incr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operation of demonstration farms (rice, vegetables, farmyard manure), establishment of income increment facilities (construction of fish farms and establishment of rice milling center). Capacity building: job training (plastering and brick making, baking, beauty art, sewing training courses, organization of village committees (organizing and operating village development committee and sub-committees), overseas training (high and working level courses in Korea). Provision of equipments and materials (agricultural machineries and tools, office equipments, job training materials etc).

We suggest that the Tshuenge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 should continuously develop the “community business units” established by the Project.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 should assist Operation and Maintenance (O&M) activities of the Tshuenge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 For having ownership and unification for Tshuenge community, through the leading role of the Tshuenge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 Carrying on the “Love Tshuenge” campaign should be recommende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epare the law or regulation related to O&M of public projects, also should establish the own department to play a role in O&M policy implementation for the public projects.

Keywords: Tshuenge, rural development,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  
Income generation, Capacity building